

현대불교 연중특집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국가차원 비지정문화재 회수대책”

문화재청 국감서 여야의원 촉구

지난 1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 감사 결과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은 줄어들지 않는 데 비해 도난 당한 비지정문화재 회수율은 겨우 1%에 머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가 적은 법인 검거보다는 도난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에 전시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사찰에 유물관을 건립해 이를 보관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경대(한나라당) 의원은 “불교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사찰 유물전시관의 건립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 전달부서 신설=지난 8월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방안이다. 강성구(민주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문화재청에 비지정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비지정문화재의 회수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도난 당한 경주 백동사 대웅전 후 불명화.

문화재청 국정 감사에서 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난 당한 비지정문화재는 1,276점(57건)에 이른다. 하지만 회수된 문화재는 13점(5건)에 그쳐 회수율이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난 당한 231점(10건)은 아직까지 한 점도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난 당한 지정문화재 회수율은 약 50%(총 14건 40점 중 7건 26점)여서 “지정문화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할 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물 전시관 건립 지원 도난 예방” “정보보존 관리 전달부서 신설”



◁1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를 보존, 관리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의 유형문화재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을 신설 불교문화재 전달부서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동채(민주당) 의원 역시 “사찰문화재의 도난예방과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유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각종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중요 사찰문화재에 대해 박물관에 위탁보존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당 문화재는 당해 장

각·회화·공예·사적 등이 공존하므로 각 과로 분산된 행정기구에서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다”며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발견’ 시부터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비지정 불교문화재 실태파악의 시급성 등이 지적됐다.

권형진 기자 jiny@oudhapa.com

‘직지’ 세계기록 유산 정식 등재

“신청 3년만에 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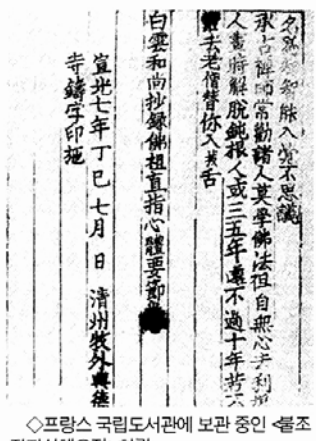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정식으로 등재됐다.

청주시는 17일 “고이치로 마스루 사무총장이 4일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인정하는 인증서에 서명했고, 13일 인증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직지>는 지난 6월 27~29일 청주에서 열린 제5차 세계기록유산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승정원 일기>(국보 303호),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등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으로 권고된 바 있다. <승정원 일기>도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

나기정 청주시장은 “1998년 청주시가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후 3년여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직지>를 연구, 홍보, 발전, 보존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낸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하권만 전한다. 권형진 기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심체요절>하권.

“일제때 태안사 전경사진 발견

원형복원 중창불사 가능”

조계종, 태안사 지표조사 보고서

신라말 해월 스님이 동리산문을 개창했던 전남 곡성 태안사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손실 이전의 전경 사진이 발견됐다. 이로써 선종 사원의 가람 배치 연구 활성화와 태안사 중창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태안사 지표조사를 통해 이제까지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한국전쟁 이전의 태안사 전경사진을 발견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흥무원 문화부장 장각 스님은 “전경사진을 보면 현재의 태안사 모습과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태안사 중창 복원 불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교종 사찰에 비해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선종 사찰의 가람배치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적기 분석을 통해 1928년 적인 선사 탐비의 탐사부분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자 대사 탐비와 이수 부분이 뒤바뀌었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지표 조사의 성과다.

조사단은 1941년 펴낸 사적기에서 ‘1928년 중건 당시 광자 대사비의 이수를 옮겨와 적인 선사비의 이수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두 탐비의 받침대 격인 거북이 모양의 귀부와 이수의 모양 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태안사는 지금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의 말사지만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 무렵에는 화엄사와 송광사를 비롯해 지금의 곡성, 구례, 순천 등지의 여러 사찰을 거느린 구산선원 가운데 하나였으며, 고려초 윤다 스님이 주석할 때는 건물만 126칸에 이를 정도의 거찰이었다.

또 조사단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남긴 태안사 재산대장과 현존 소장유물 비교를 통해 818점에 이르던 유물 가운데 98%에 달하는 803점이, <태안사지>에 전하는 28종의 건축물 중 19종(68%)의 주요 전각이 주로 한국전쟁의 와중에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사찰문화재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형진 기자



◁한국전쟁으로 인한 손실 이전의 태안사 전경 사진.

“사회문제 해결 불교서 실마리 찾자”

유승무 교수, 불교사회문화원 포럼서 주장

기존 사회문제이론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교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이 “사회문제를 보는 불교적 시각”을 주제로 20일 개최한 포럼에서 유승무(중앙승가대·사건

교수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문제이론들은 사회문제를 유발한 특정한 행위자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함으로써 처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행위자 자신의 내적 각성과 성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불교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



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에서 행위의 판단 기준 혹은 사회통제의 궁극적 원천은 사회규범이 아니라 다르마(법)인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법적 규범의 구속력에 비해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다르마의 구속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인간사를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 개념이 성숙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좁혀 놓고 있다”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 기사남편 ‘고승다시보기’ 쉽다.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단...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앞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상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체계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단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할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고 고생하는 분을위해 삼정단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자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머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닭이 없이는 풀랑베가 생성되고 풀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물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회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방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신후 오는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정진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전신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자,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던 노승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승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 재분량을 당초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들을 다스리고 둘째, 현머리를 길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시기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든 허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므로)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임기를 돋우어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8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